“부산 첫 만세운동, 범어사 대중이 주도”

‘범어사 3.1운동 재조명’ 세미나
전문가들 주장 잇달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가 부산 지역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점입니다. 당시 만세운동을 이끈 김법린 스님의 회고록에 따르면 ‘3월 7일 동래장터에서 시작됐다’ 고 기록돼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범어사 스님들을 주축으로 부산 최초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2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범어사 3.1운동 재조명’ 을 주제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범어사는 세미나를 통해 “부산 최초 독립만세운동은 범어사 스님들을 주축으로 시작됐으며 범어사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계승한 중심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화선 운영위원(문화유산회복재단 부산지역)은 “그동안 김법린 스님의 독립만세운동 기록은 외면당해 왔다. 하지만 1946년에 발표된 〈김법린의 3.1운동과 불교〉와 1964년에 발간된 스님의 회고록 〈동래읍 기미 만세사건〉에 따르면 1919년 3월 7일 동래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법린(金法麟, 1899~1964) 스님은 14세에 출가 후 1915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3.1운동 당시 영남 불교계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고, 1930년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뜻을 이어 일제에 대항하는 비밀결사조직인 만당(卍黨)을 결성했다. 1952년 문교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195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 1963년 동국대 총장 등 불교 및 정계 · 사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10년 촬영된 부산 범어사 명정학교 전경. 명정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1919년 3월 7일 동래장터에서 부산 첫 만세운동이 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기존 동래여고 주도의 3월 11일 만세운동보다 빠른 날짜다.

김법린 스님 회고록 2편 근거
“3월 7일 동래장터서 만세운동”
기존 동래여고 기록보다 앞서

범어사 임제종 한국 선맥 계승
불교 왜색화 막아낸 중심 역할



2월 20일 범어사서 열린 세미나.

김화선 운영위원에 따르면 1919년 3월 11일에 열린 일신여학교(현 동래여고)의 만세운동이 부산 최초 독립만세운동으로 알려진 것은 범어사의 만세운동이 3월 17~1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서다. 1969년 2월 10일 3.1동지회에서 발간한 〈3.1운동실록〉에 김한기 스님은 ‘3.1만세운동 참가한 후 범어사에 도착했고 그 날짜가 3월 15일’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화선 운영위원은 “김한기 스님은 3월 7일 진행된 범어사의 만세운동에 대해선 자세히 구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범어사 주지는 30본산 주지 대표로 3.1운동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동참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어려운 과정 속에도 범어사 사중 스님들은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범어사뿐 아니라 김해 · 정관 · 기장 지역 등으로 운동이 확장돼 그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범어사 명정학교의 3.1운동 재조명’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배진영 경성대 사학과 강사는 “김법린 스님은 범어사를 중심으로 동래 장날 명정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일으키기로 하고 결사대를 조직, 선언서 5000장을 등사해 3월 6일 오후 범어사에서 선언식을 거행했다”며 “다음 날인 3월 7일 동래 장날 밤에 동래로 잠입해 장꾼들이 모이길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범어사는 불교 왜색화를 막아내고 한국 선종의 법맥을 새롭게 계승 발전시킨 불교자주화의 중심지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배진영 강사는 “민족문화적 측면에서 일제의 강제 침탈로 나타났던 불교의 왜색화를 막아내고 민족 고유의 불교를 지켜낸 불교 자주화운동이 범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송광사에서 시작된 임제종은 범어사로 종무원을 옮긴 뒤 동래 · 초량 · 대구 · 서울 등지에 포교당을 세우고 세력을 확장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불교의 침투에 맞서 한국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했던 민족수호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신규 교육아사리 11명 위촉

교육원 21일 위촉식… 연구활동 포럼도



조계종 교육원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규 교육아사리 11명과, 재위촉 심사를 통과한 9명의 교육아사리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승가교육을 이끄는 교육아사리로 11명의 스님이 새로 위촉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규 교육아사리 11명과, 재위촉 심사를 통과한 9명의 교육아사리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교육아사리 제도는 지난 2010년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종단에서 필요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에는 계율과 선불교, 응용불교에서 새롭게 교육아사리가 위촉됐다. 계율 분야에서는 법장 · 담준 · 유정 스님이, 선불교 분야에서는 진관 · 청강 스님이, 응용불교 분야에서는 태경 · 허허 · 묘광 · 일현 · 동환 · 대현 스님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재위촉된 교육아사리는 대승불교 분야의 원철 · 도업 스님, 불교사 분야의 정완 · 문광 스님, 선불교 분야의 철우 · 지은 · 탄호 스님, 계율 분야의 보운 스님, 응용불교 분야의 범우 스님이다.

조계종 신규 교육아사리 임기는 3년이며, 3년 동안의 연구 및 교육활동, 종단 참여율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종단의 집단지성인 교육아사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평소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불교와 종단의 문제를 진단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이후에는 교육아사리 연구활동에 관한 포럼이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콜텍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 발원”

사노위, 2월 20일 서울 콜텍청사 앞서 7시간 릴레이 기도

“13년 전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사과, 명예로운 복직, 해고기간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2월 20일 서울 등촌동 콜텍 청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및 해고자 복직을 기원하는 ‘7시간 릴레이 기도회’ 를 봉행했다. 이날 사노위 위원 스님들과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등이 정진에 동참했다.

기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사노위 소속 인우, 서원, 법상, 혜찬, 우담, 백비 스님은 80분씩 차례로 염불기도를 진행했다.

콜텍의 모기업 콜트악기는 전 세계 기타의 약 30%를 제작 · 유통하는 회사이다. 박영호 콜텍 사장은 2007년 7월 사전 통보 없이 공장 생산직 노동자 100여 명을 집단해고 했다. 이후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폐업 철회를 위한 13년째 최장기 투쟁을 진행해왔다.

사노위는 “해고노동자 측은 3월 초 박영호 사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나 노사 간 합의할지는 미지수”라며 정년을 앞둔 해고자들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018년부터 2월 13일까지 박 사장이 참여하지 않은 7차례 노사 교섭이 있었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는 결렬됐다. 이에 사노위는 기도회와 오체투지 등을 통해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2012년 2월 대법원은 이를 뒤집으며 회사 측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지원 기자

“대행 스님 가르침 밑거름, 참된 사람 되길”

한마음선원 2월 17일 제14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정신세계 참사람 육성 위해
매년 대학 · 고등학생 후원
올해 56명 학생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2월 1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14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행장학회는 대행 스님이 남긴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라’ 는 유지에 따라 운영되는 장학제도로 각종 학업우수 학생을 비롯해 신심이 높은 불자학생들을 선정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대행장학금은 대학생 12명, 한마음장학금은 대학생 14명, 경인교육대 장학금은 대학생 10명에게 전달됐으며, 불심이 깊은 20명의 고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회 측은 “이 자리에 계신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후원자분들이 보태주신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꿈나무들에게 밑거름이 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행장학회 선발기준은 안양 본원과 지원에 소속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로 담당스님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하게 된다. 또 경인교육대학교의 불심이 돈독한 우수학생들에게도 수여하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총 56명의 대학생 · 고등학생이 장학 수혜를 받았다.

한마음선원 측은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회에서 수여되는 장학금과는 다르다. 단지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주시고 마음을 내주시는 큰 스님의 뜻이 살아있는 마음의 선물이자 양식”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통범음범패
학 인 모 집

개강일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접수기간 상시모집
강의시간 매주 수요일 / 오후 2시 ~ 6시
수강료 1개월 10만원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 사진 1매
강주스님 덕 안

교육과정
1 조석예불, 사시불공, 상용의식
2 49재 천도재 의식 전반(시련 ~ 봉송)
3 사물 다루는 법(목탁, 요령, 태징, 북)
4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요잡바라 • 천수바라 • 다게 작법
• 관욕바라 • 사다라니바라 • 운심게 작법
• 화의재바라 • 도량게 작법 • 긔경이 작법

접수 및 강의장소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47, 청하빌딩 4층
전화번호 051)558-5077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 · 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